

●그래픽으로 보는 PS의 역사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이례적으로 'SK 와이번스 감독 취임식 및 이임식'이 열렸다. SK 제5대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용희 신임 감독(오른쪽)이 취임식에서 최창원 구단주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감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야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k007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

김용희 SK 신임감독 취임 일정

“부진 회복 위해선 인프라 구축·육성 중요
매뉴얼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야구 추구
등번호 88번? 팔팔이란 어감 좋잖아요”

신임 감독이 전임 감독에게 공식적으로 지휘봉을 물려받는 자리. 새 감독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찼고, 전 감독은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축복했다.

김용희 SK 신임 감독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SK의 1,2군 선수단 전원과 수많은 취재진, 구단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김용희 호’의 출발을 알렸다. 김 감독은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최선’이라는 단어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진심을 담아 쓴다면 그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등번호 88번을 달고 현장을 지

휘한다. 김 감독은 “처음에 감독을 할 때 90번도 달고 89번도 달았던 기억이 난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88(팔팔)’이라는 어감이 생동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번호라 선택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일찌감치 올해 1군에서 타격을 지도했던 김경기 코치에게 수석코치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2군 감독을 하면서 김 코치와 2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며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고, 선수들과의 잘 호흡하고 야구에 대한 지식도 많아서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나머지 코칭스태프 인선과 구성은 미정. 김 감독은 “빠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이제 관심은 김 감독이 앞으로 어떤 야구를 펼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SK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위업을 이뤘지만,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 감독

은 “최근 2년간의 부진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육성 시스템을 가동해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야구 역시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 야구를 추구하고 있다. 체계에 과학적인 부분을 가미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팀이 방향성을 그릴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작아진다. 그게 좋은 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 감독은 이를 위해 전임 SK 감독들의 조언도 구했다. “초대 강병철 감독님부터 이후 모든 감독님들을 거치면서 좋은 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날(22일) 김성근 전 감독님을 만나 이것저것 여쭙보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다”며 “이만수 감독님의 의견도 듣고 싶다. 좋았던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부족 한 부분은 반드시 도전하고 발전시켜서 SK 와이번스의 야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천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이만수 전 감독의 ‘마지막 인사’

구단, 이임식 행사 마련…작별의 시간
이만수 “좋은 관계 만들어줘 감사하다”

시작만큼이나 창대한 마지막이었다. SK 이만수(56) 전 감독이 팬들과 선수들에게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다. 구단이 직접 마련한 이별의 행사를 통해서였다.

SK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대 김용희 감독 취임식에 앞서 떠나는 이 전 감독의 이임식도 함께 열었다. 프로야구단이 감독의 취임식과 이임식을 동시에 개최한 것은 삼성이 선동열 감독에서 류중일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하던 201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만수 전 감독은 2007시즌부터 김성근 전 감독을 보좌해 SK의 수석코치를 맡았다. 2011시즌 중반 김 전 감독의 중도퇴진과 함

께 감독대행 자리에 앉았고, 2012년 정식 계약을 맺고 3년간 팀을 지휘했다. SK의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함께 한 것은 물론, 2012년에는 직접 팀을 한국시리즈로 이끌었다. 올 시즌 막바지에는 최종전까지 끈질긴 4강 싸움을 하면서 SK의 끈기와 투지를 보여주기에도 했다. SK는 최태환의 예우를 갖춰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했다.

이만수 전 감독은 지난 8년간의 모습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화면을 바라봤다. 이 전 감독의 아들 내외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SK는 영상이 끝나자 감사패와 사진앨범을 전달했고, 최창원 구단주는 직접 이 전 감독에게 행운의 열쇠와 꽃다발을 건넸다.

이 전 감독은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조용하게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임식을 하게 돼 당황하기도 했다. 좋은 관계를 만들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SK 지휘봉을 내려놓은 전임 이만수 감독(오른쪽)이 이임식에 참석해 SK 선수들과 작별의 악수를 나눴다. 인천 | 김민성 기자

어준 구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선수들이 지난 두 달 간 강인함과 투지를 보여줘서 마지막까지 기적을 보여준 것도 고마웠다. 이런 선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참 행복했다”고 말했다. 또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한다면 분명히 SK가 최고의 명문 구단이 되지 않을 까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뒤에서 계속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배영은 기자

버틀러, 동점·결승타…KC 반격 1승

손건영의 ML 가을사나이

아메리칸리그의 지명타자 자리는 수비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팀 타선의 핵을 이루는 선수의 몫이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비드 오티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시즌 내내 글러브를 끼지 않지만 오티스는 내셔널리그 홀로 치러지는 경기에서 1루수로 출전한다.

1985년 이후 29년 만에 정상 등극을 노리고 있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올 시즌 아킬레스 건은 지명타자였다. 빌리 버틀러(28)가 생애 최악의 시즌을 보내 공격력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2012년 타율 0.313, 29홈런, 107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고작 9개의 홈런을 치는 데 그쳤다. 로열스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95개의 홈런을 기록한 것도 지명타자 버틀러의 파괴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포스트시즌에 들어 월드시리즈 직전까지 로열스가 기적의 8연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버틀러는 팀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5타점을 올리는 했지만 홈런을 단 한 개도 치지 못해 중심타자다운 활약을 전혀 펼치지 못했다. 캔자스시티는 22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1-7로 완패해 연승 행진이 중단됐다.

23일 카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2차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버틀러의 이름을 연호하는 홈 팬들의 환호성이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1회초 캔자스시티 선발투수로 나선 요르다노 벤추라가 상대 1번타자 그레고르 블랑코에게 홈런을 맞아 0-1로 리드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날 5번 지명타자로 나선 버틀러는 1회말 2사 1-2루에서 좌중간 적시타를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2로 동점을 이룬 6회말 무사 1-2루, 샌프란시스코 브루스 보치 감독은 선발투수 제이크 피비 대신 진 마치를 마운드에 올렸다. 역대 전적에서 버틀러가 피비를 상대로 타율 0.424(33타수 14안타)로 유독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버틀러는 1회와 거의 똑같은 타구를 날려 2루 주자 로렌조 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 이날 경기의 결승 타점을 올렸다. 캔자스시티는 버틀러의 적시타를 기점으로 6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내며 7-2로 승리해 1차전 패배를 설욕했다. 버틀러는 1985년 조지 브렛 이후 월드시리즈에서 동점타와 적시타를 모두 때려낸 첫 번째 로열스 선수가 됐다.

지난 200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4번째로 로열스에 지명된 버틀러는 4년간 3000만 달러(약 317억원)의 장기 계약이 올 시즌 후 만료된다. 2015년에는 구단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 125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로열스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다.

월드시리즈는 무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25~27일까지 3~5차전을 치른다. 버틀러는 벤치를 지키다 승부처에서 대타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로열스가 최소한 1승 이상을 따내야만 버틀러가 홈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캔자스시티의 빌리 버틀러가 23일(한국시간) 카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2-2 동점으로 진행되던 6회말 무사 1-2루서 1타점짜리 결승 중전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 버틀러는 0-1로 뒤진 1회말에도 동점 적시타를 날리며 7-2로 승리한 2차전의 영웅이 됐다. 캔자스시티(미 미주리주) | AP뉴시스

돌신님, 한신 JS 우승 소원 들어줄까?

〈石神様：오승환 별명〉

한신 우승 1985년 1회뿐…준우승 4차례
소프트뱅크 이대호도 프로 첫 우승 절실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한신 타이거즈가 맞붙는 일본시리즈(7전4선승제)가 25일 고시엔구장에서 시작된다. 무엇보다 1982년생 동갑내기인 소프트뱅크 4번타자 이대호와 한신 마무리투수 오승환이 격돌하기에 한국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일본시리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한(假) 시리즈’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한신, 이승엽에게 막힌 한 오승환으로 풀까

한신은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함께 인기를 양분하는 구단이지만, 우승 횟수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요미우리가 일본시리즈 우승을 22회나 차지했지만, 한신은 1985년 우승이 유일하다. 한신의 도전사는 눈물겹다. 일본시리즈 준우승은 총 4차례. 1962년엔 도에이 플라이어스(니혼햄 전신), 1964년엔 난카이 호크스(소프트뱅크 전신)에 패했다. 그리고 2003년엔 다이에 호크스(소프트뱅크 전신)와 2005년엔 지바롯데 마린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 일본시리즈에서 만나는 소프트뱅크 전신 팀들에게 2차례나 무릎을 꿇었기에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2005년 지바롯데에 패퇴할 때 이승엽을 막지 못하면서 준우승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정규시즌 30홈런을 때린 이승엽은 한신과의

일본시리즈 4경기에서 타율 0.545(11타수 6안타), 3홈런, 6타점을 올리며 MVP급 활약을 펼쳤다.

한신으로선 그로부터 9년 만의 일본시리즈 진출. 이승엽에게 막혀 우승을 놓쳤던 한신이 올해 같은 한국인이자 삼성의 후배인 오승환으로 그 한을 풀 수 있을까. 한신팬들은 클라이맥스시리즈 6경기에 모두 등판해 4세이브를 거두며 MVP에 오른 ‘돌부처’ 오승환을 이제 ‘이시가 미사마(石神様)’로 부르고 있다. ‘돌신님’으로 신격화하며 그들의 우승 한을 풀어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이대호의 첫 우승 한을 풀어줄까

소프트뱅크는 통산 5차례 일본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일본시리즈 우승 이후 3년 만이자 통산 6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은 오히려 이대호가 더 강하다. 2001년 프로 데뷔 후 아직까지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롯데 시절 한국시리즈 무대조차 밟아보지 못해 항상 “목표는 우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소프트뱅크는 올 시즌 개막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힐 만큼 전력이 강하다. 이대호는 클라이맥스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0.400(20타수 8안타) 4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자랑했다. 이대호는 과연 이번 일본시리즈에서 개인 첫 우승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